

제1절 봉평1리(鳳坪一里)[속명: 골장(骨長), 달동네]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동해가 있고 마을 앞은 7번 국도이며, 골장곶의 돌출한 석벽 남쪽은 작은 어항이다. 남서쪽에 울진읍 온양2리, 서쪽은 화성1리 꽃방과 접하였고, 북쪽은 봉평2리와 접하고 있으며, 면 소재지에 있는 죽변항을 마주 보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 골길(骨長, 骨吉)

약 500년 전에 윤씨(尹氏)라는 사람이 개척하여 정착한 마을이라고 전하고 있으며, 골길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 명칭으로 마을의 골이 길다고 하여 골길(骨吉)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대동여지도에 골장진(骨長津)으로 표기되어 있다. 골장곶(骨長串)의 조망(眺望)이 수려해서 200년 전에 울진 현령이 망양정을 이건하고자 하였다는 설도 전해진다.

2) 달동네

모라골(牟羅谷)이라고도 부르며, 1975년경에 7번 국도 확포장공사를 할 때, 모라골을 개척해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달동네 부근 국도변에는 최근 펜션, 여관, 빌라, 찻집 등이 다수 조성되어 있다.

3. 가구 분포

총 120세대가 거주하며 김해 김씨(金海金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평창 이씨(平昌李氏), 해주 오씨(海州吳氏) 등이 분포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성황당

해마다 음력 3월 7일의 성황당 성주일에 제사를 지내고, 음력 10월 1일에는 동제인 성황제를 지낸다.

2) 동대암(東臺岩)

골장항을 북동쪽으로 에워싸고 있는 암석으로 이뤄진 봉우리이다. 노송과 섬향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후릿그물 작업을 위해 망잡이가 고기떼의 이동을 살펴보는 곳이어서 망산이라고 부른다. 동대암 아래 백사장과 연결한 곳의 동굴은 성황당이 조성돼 있다.

제2절 봉평2리(鳳坪二里)[속명 : 셋들, 박실(朴實)]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동해 연안으로 7번 국도가 지나가고, 남쪽은 솔치봉 주맥(主脈)이 동쪽에 역용맥(逆龍脈)으로 뻗으면서 마을 앞의 남산(南山)을 이루고 있으며, 마을 중앙으로 초평천이 흐르고 있다. 서쪽은 태백산맥의 샷갓재(笠峰嶺) 지맥(支脈)이 뻗어 솔치봉과 소백산을 이루고 있으며, 북쪽은 후정3·4리와 접하여 있다. 마을회관은 1979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1988년 4월, 봉평들에서 발굴돼 국보 제242호로 지정된 울진봉평신라비와 울진지역 비석군을 보관, 전시하는 봉평신라비전시관이 조성되어 있다.

2. 마을의 역사

자연마을로 셋들과 박실이 있다.

1) 박실(朴實)

1504년(연산군 10)경에 영해 박씨(寧海朴氏)가 처음으로 이 마을을 개척하여 살았다 하여 박실(朴實) 또는 박곡(朴谷)이라 부른다.

2) 셋들(鳳坪)

1590년경(선조 23) 봉성(鳳城)에서 살던 영양인(英陽人) 김계근(金啓瑾)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동해 연변(沿邊) 건좌(乾坐)의 숲 사이에 있는 작은 못(池)에 가면 좋은 징조(徵兆)가 나타나리라 하였다. 그 후 꿈에 나타난 곳을 찾아가 보니 바위 밑에서 찬란한 빛의 봉황(鳳凰)이 물을 먹고 산으로 날아갔다. 이 산을 봉황산(鳳凰山, 富興峯)이라 하고 이 못을 봉지(鳳池)라 하였다. 또한, 봉황새가 있던 들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셋들(鳳坪)이라 하였다. 그 후, 1714년(숙종 10)에 담양인(潭陽人) 전백현(田伯賢)이 입주하면서 봉평을 초평(草坪)